

■제1독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21,4-9

4 길을 가는 동안에 백성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5 그래서 백성은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당신들은 어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소.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 6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에게 불 뱀들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7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였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불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을 우리에게서 치워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8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9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 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 내 백성아,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내 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 격언을, 예로부터 내려오는 금언을 말하리라. ◎
- 죽이시던 그때서야 그들은 하느님을 찾고, 그분께 다시 돌아와, 하느님이 그들의 바위이심을 기억하였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
- 그 입으로 그분을 속이고, 혀로는 그분께 거짓말을 하였네. 그분께 마음을 굳건히 두지 않고, 그분 계약에 충실하지 않았네. ◎
- 그분은 자비로우시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셨네. 당신 분노를 거둬 돌이키시고, 결코 진노를 터뜨리지 않으셨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2,6-11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6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7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

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8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9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10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11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알렐루야.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13-17

그때에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13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15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6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17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땅에서 들어 올리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이리라.

-----

## ■ 공지사항

### ■ 10월 5일(주일) 추석 합동 위령 미사 안내

세상을 떠난 조상, 부모, 형제, 친지들을 위한 위령미사를 봉헌하실 분은 미리 미사예물봉투를 작성하여 교무금함 또는 제대부 봉사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중 보편지향기도 끝에 연도를, 봉헌 때 분향을 합니다. 미사 신청 지향은 게시판에 미사 당일 공지됩니다.

## ■ 우리들의 정성(09/07/2025)

■ 미사 봉헌금: \$579.00 | ■ 교무금: 성미용(9), 신창식(9), 이남희(9), 장재원(9), 정소훈(9), 최교균(9-10)

교무금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하고자 하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적어도 한달 중 하루의 수익은 하느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자는 취지로 자신의 한달 수입의 1/30(3.3%)이라도 책정하자고 제안합니다.

납부시 교무금 봉투에 '한글 이름', '세례명', '금액', '납입하는 월'을 정확하게 적으신 후 교무금함에 넣어 주세요. 납입 내역은 다음 주 주보, 월별로 게시판에 공지됩니다. 책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교우 상점 소개 (교우 상점을 알려주세요)

▶ **Naked Tchopstix (일식|한식|코리안치킨)** | 3855 E 96TH St Unit A, IN 46240 | ☎ 317.569.6444 | 이경래 바오로

▶ **Korean BBQ n Chicken** | 214 E Main St Westfield, IN 46074 | ☎ 317.399.7077 | 이상진 프란치스코

▶ **Bright Smile Dental Care (치과)** | 9931 Eller Rd, Fishers, IN 46038 | ☎ 317.845.5100 | 공성현 니콜라오

▶ **Connie's Beauty Supply** | 2405 E 38TH St, Indianapolis, IN 46218 | ☎ 317.545.4547 | 김세동 사도요한

September 14, 2025 연중 제24주일

## 십자가 현양 축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3,15).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may have eternal life(Jn 3,15).



천주교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성당

Korean Catholic Church of Our Lady of Holy Rosary in Indianapolis

- 성 당 : 7536 E 46th St. Indianapolis, IN 46226
- ☎ (317) 542-0863 (문자메시지 가능하며, 선호합니다)
- 홈페이지 : indykcc.org | 이메일 : [indykcckorea@gmail.com](mailto:indykcckorea@gmail.com)
- 사제관 : 7556 E 46th St. Indianapolis, IN 46226
- 사목회장 : 공성현 니콜라오 | 담당신부 : 김병조 베드로
- 주일미사 일요일 오전 11시 | 평일미사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부터. 사제에게 요청하세요.

## ■ 전례 봉사자

	연중제24주일(09/14)	연중제25주일(09/21)	연중제25주일(09/28)
해설	이상진 프란치스코	정명호 미카엘	오미숙 말가리타
독서	신청란   장선애	이경래   박효연	신창식   신영향
복사	이하은 레베카	공지나 가브리엘라	신학생
반주	한혜경 아녜스	최아영 아녜스	최아영 아녜스
제대	안소희 클로틸다	오미숙 말가리타	이명희 비비안나